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11월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

인구이동률 11.3%...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감소율 16%... 2008년 19.2% 이후 가장 커
“9~10월 주택거래량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지난 9~10월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동이 많은 20~30대 인구는 감소하고 이동이 적은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74년(39만4000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2008년(-19.2%) 이후

가장 컸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23개월 연속 내림세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1.3%(47만6000명)으로 2.1%포인트(p)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이동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이동률이 높은 20~30대 인구는 11월 기준 전년보다 33만명이 감소했는데, 인구이동률이 비교

적 낮은 60대 이상 인구는 53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1월 주택 경기 지표를 보면 9~10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 6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7000건)과 비교해 큰 폭(58.8%)으로 감소했다. 이런 주택매매 감소가 인구 이동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2%, 시도 간 이동자는 33.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0%, 11.8% 감소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3842명), 인천(2635명), 충남(1769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서울(-6405명), 부산(-1026명), 대구(-667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11월 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세종(1.2%), 인천(1.1%), 충남(1.0%) 등은 순유입, 서울(-0.8%), 광주(-0.4%), 부산(-0.4%) 등



최이슬기자

은행·증권주, 배당락일 맞아 동반 약세

국내 증시가 배당락일을 맞이한 가운데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은행·증권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기준 기업은행은 전 거래일 대비 1150원(10.27%) 내린 1만500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우리금융지주(-8.85%), BNK금융지주(-7.73%), 한국금융지주(-7.66%), 한국금융지주(-7.14%), DGB금융지주(-6.99%) 등 대부분의 은행주가 동반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간 대신증권2우B(-9.62%), 대신증권우(-9.29%), 대신증권(-7.85%), 삼성증권

(-7.44%), NH투자증권(-7.02%), 유안타증권우(-6.80%), 현대차증권(-6.72%) 등 증권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종목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배당락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금융주는 국내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락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다 이후 매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최이슬기자



이마트 'DAY1' 할인 행사한다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DAY1'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는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날 이틀간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아성다이소, 신년 다이어리·달력 기획전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신년을 맞

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이어리·달력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전 상품은 다이어리, 달력, 노트 등 총 40여 종이다. 먼저, 다이어리는 다양한 디자인과 구성이 눈에 띈다. 'PP투명 커버 다이어리'는 밤하늘과 바다가 그려진 감성 표지 일러스트 2종으로 구성했고, 월간·주간 계획표, 줄 노트 등이 포함된 일정을 더욱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다. '말랑커버 6공 다이어리'는 앞면의 카드홀더를 통해 사진을 변경할 수 있고, 내지를 교체할 수 있다. 뉴스

내년 상반기 신차 쏟아진다... "수요 침체 정면돌파"

올해 국산차 판매량 침체기였던 2013년과 비슷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년 초부터 신차를 대거 선보인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신차 출시에 나서는 배경은 올해 자동차 업계 곳곳에서 수요 침체의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는 국산 차의 내수 시장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국산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보다 2.5% 줄어든 139만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2013년(137만3902대) 판매량과 비슷하다. 내년은 올해보다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차 출시를 동력 삼아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차급에서 완전변경(풀체인지)과 부분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내년 신차 라인업의 선봉장은 소형 SUV 코나가 맡는다. 현대차는 최근 2세대 코나 디자인을 공개했다. 2017년 6월 1세대 코나를 선보인 이래 5년만의 완전변경 모델이다.

현대차는 코나 파워트레인을 ▲전기차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포함) ▲N라인 등 총 3가지로 출시, 소비자 선택지를 더 늘렸다. 신형 코나는 내년 초 내연기관 모델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중형 SUV 쏘렌토 5세대 신형 모델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아직 쏘렌토 신형의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예상 디자인이 나오며 이목을 끌고 있다. 4세대 모델에서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추가되며 효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5세대에도 하이브리드가 라인업에 포함될 것이라 관측이다. 기아는 대형 SUV EV9을 내년 4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 모델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통해 만든 차로, 차체를 키우면서 긴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기아에 따르면 이 차는 1회 충전 시 최장 482km를 갈 수 있다. 앞서 기아는 7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EV9 콘셉트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KG모빌리티로 새롭게 태어나는 쌍용차는 중형 SUV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프로젝트명 U100)을 선보인다. 토레스는 지난해 기준 쌍용차 내수 시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모델이다. 토레스 전기차 모델의 성공은 KG모빌리티의 경영 정상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시선이 쏠린다. 한국GM은 내년 상반기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을 선보인다. 글로벌 GM은 이를 위해 CUV 생산을 맡은 창원공장에 9000억원을 투자했다. 김재환기자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새해 계묘년 맞이 다양한 이벤트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객실 패키지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2023, 묘(卯)해' 패키지는 산뜻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객실에서의 1박과 ▲조식 뷔페 2인 ▲공드린의 '루이보스 티: 래빗' 1박스▲2023 새해 쿠키 세트 ▲사우나 2인 ▲피트니스센터·실내 수영장 무료 입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패키지는 31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판매한다. 연말과 새해에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귀여운 '2023년 토끼', 유럽·중국·아프리카 등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토끼 발바닥', 복이 가득 담긴 오동통한 '복주머니', 세 가지 쿠키를 31일 체크인 시 제공하는 'Happy Rabbit New Year!' 이벤트를 한다. 객실과 중식·석식 뷔페를 이용하는 토끼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어서오게, 묘(卯)' 이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또 내년 1월 1일 조식 뷔페에 장수와 풍성

패키지 31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판매



한 재물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새해 음식 떡국에 겨울 제철 식재료인 매생이를 듬뿍 넣은 '매생이 떡국'과 중국의 새해 축하 음식인 '교자'가 추가로 제공해 새해 첫날 복을 기원한다. 정승호기자